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성료

전북문화관광재단, 다채로운 공연콘텐츠로 340명 예술인 참여 1만185명 관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의 '2024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이하 브랜드공연)'이 6개월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3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브랜드공연은 총 72회 공연을 통해 1만185명의 관람객을 맞이했으며, 340명의 예술인이 참여해 지역 내 예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브랜드공연은 전북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화 공연콘텐츠를 개발하고, 상설공연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전주시(전파이브) 댄스뮤지컬 '조선세프한상궁' △익산시(세종전통예술진흥회 전북지부) 퓨전창극 '허균의 미인여행' △남원시(남원시립극단) 남원창극 '방자, 춘향을 말하다' △김제시(예술집단 열간) 가족뮤지컬 '최충우돌 의적공주' △임실군(임실필봉농악보존회) K-관주지컬 '필봉백년' △고창군(고창농악보존회) 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사이닝고창' 등 6개 시군(예술단체)을 선정했다.

공연은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으며, 지역 고유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공연콘텐츠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브랜드공연의 종합평가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평가(70%), 관객평가(20%), 행정평가(10%)로 평가 지표를 구성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4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이 6개월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 결과, 임실필봉농악보존회의 '필봉백년'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제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임실치즈축제에서 추가 공연을 진행, 전통문화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 또한, 임실군이 안정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공연을 관람한 한 관객은 "전통과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공연이 매우 흥미로웠다"며 "공연 후 인근 관광지까지 둘러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브랜드공연을 통해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설공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2025년도 브랜드공연의 사업대상지 및 공연콘텐츠 공모를 내년 1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제15회 JB한국미래문화상 수상자 선정



(사)한국미래문화연구원(원장 유미숙)은 제15회 JB한국미래문화상 시상식을 거행한다. 수상자로 한국미래문화상 공로부문에 이두현 시인을, 문화부문에 고재홍 수필가, 강석희 시인, 문화부문에 이희정 국악인을 선정했다.

문화부문에 후보가 많아서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심사를 하였고, 최종 6편을 대상으로 숙고하여 최종 선정됐다. 심사에는 김현조 시인(전 전북시인협회장)이 참여했다. 수필을 과거 산비의 문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수필을 통해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바라보는 지향성과 살아온 내력을 알 수 있는 사실적이라는 점에서 수필은 매력

을 발산하는 장르임에 분명하다. 오랫동안 수필을 써 왔기 때문에 문장에 형상성이 뛰어나서 수필을 신사와 같은 문학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 작품이 고재홍의 작품이다. 강석희 시인은 두 권의 시집을 내었지만 내력이 있는 시인이다. 그의 묘사와 시작 기교가 돋보이기 때문이다. 문학에 완성이라는 말은 매우 조심스럽다. 반면 가능성과 기대는 늘 실례게 하는 신비감이 있다. 강석희 시인을 선정할 것은 '재료'이다. 그의 작품이 신선하고 다음이 궁금하기 때문

이다." 하고 수상자에 대한 선정이유를 심사위원장인 김현조 시인은 말했다.

문화부문은 대한민국 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이거나 기대가 높은 사람에게 수여되는데, 이희정(문화포럼 나니레 대표)가 선정되었다. 이희정은 부지런히 활동하며 봉사하는 대표적인 국민인으로 판소리가 전주를 연상시키듯, 이희정은 활동력과 실력으로 국악을 국악답게 이미지화했다.

한편 한국미래문화상 공로부문에는 이두현 시인을 선정했다. 이두현 시인은 한국미래문화연구원장 재임시에 열정적으로 단체를 이끌었으며 수능시험이 끝난 학생들에게 우리문화를 공연장에서 실감 있게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등 우리 문화와 미래세대를 접목하였다. 많은 공로를 치하하고자 수상자로 선정했다.

(사)한국미래문화연구원은 지난 1991년(사단법인 2000년)에 설립, 문화와 문화예술인들이 회원이 되어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JB한국미래문화상은 (사)한국미래문화연구원이 주관하며 전북은행이 후원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미식관광국제포럼 열려

전북미식관광국제포럼이 23일 오후 2시 하안 양육집에서 열렸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풍부한 미식 문화와 관광 자원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미식관광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국내외의 미식 전문가, 관광업계 관계자, 학계 및 지역 사회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와 교류를 이어갔다. 특히, 전북의 전통 한식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 관광 사례가 소개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포럼은 △전북의 미식관광 전략 발표 △국내 성공 사례를 통한 발전 방향 토론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하여 전북만의 독창적인 미식관광 브랜드를 확립하고, 전 세계 관광객에게 전북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추진

내년 5월 창단 목표... 운영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 출범을 목표로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추진중이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평화의전당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창단에 관심 있는 도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 방향 안내 및 참여와 관심 확대가 목적이다. 설명회는 장애인 오케스트라단 △추진개요 △추진절차 △구성 △재원계획 △근무형태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은 2025년 5월 창단을 목표로 만 18세 이상 단원(장애인) 10명과 지휘자(비장애인)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창단 이후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역



할을 하게 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다"며 "졸업 후 취업이 막막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니 아이와 상의해 꼭 지원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운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예술활동으로 인한 장애인의 자립 및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장애인 오케스트라단 창단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1회 전북자치도 문화예술의 밤' 성료

(사)더문화(이사장 소현영)가 주최한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밤 행사가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 문화공간 이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100여명의 음악애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1부는 이운정 예술감독의 지휘와 송미령 교수의 사회로 최형준 가수의 통기타 열창과 박보성 색소폰 연주자의 색소폰 연주, 김민수 명창과 박보성 색소폰 연주자의 듀엣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2부에서는 석상근 비리톤의 'You raise me up, La Bomba' 열창과 송년영 소프라노의 'Think of me', 아름다운 나라 열창, 송년영 석상근 듀엣과 이운정 피아니스트의 'Lippen Schweipeu', '축배의 노래 Brindisi', 'White Christmas' 등의 공연으로 청중들과 함께 호흡



하는 아름다운 무대가 이어졌다. 이날 조보성 전주매일신문 대표는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음악회를 통해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격려했다.

(사)더문화는 소외된 이웃에게 음악 등 문화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유를 누리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금> 전주시 제공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관공각

내아